

북한 국어 교과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췌’의식화 교육 내용분석

엄인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수료

- I. 머리말
- II. 체제유지를 위한 계급주의 교양 교육에서의 '원쑤'의식화 교육
- III. 북한 국어 교과서의 '원쑤'의식화 교육 내용분석과 전환 관점
- IV. 결론

I. 머리말

북한 청소년은 국어 교과서 내용을 통해 '원쑤'로 규정된 사람과 체제를 미워하도록 교육받는다. '원쑤'에 대한 의식화 교육은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북한 정치사상 교양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 중 하나이다. 북한은 이 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북한체제와 수령에게 충성하도록 강제한다.

이 연구는 북한 국어 교과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위한 '원쑤'의식화 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북한이 의도한 국어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통일 시대 국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전환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북한 국어 교과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북한 청소년에게 적을 미워하도록 교육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때의 적은 주로 '원쑤'로 표현되는데 국어 교과서의 '원쑤'는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위한 삽화가 학령기 아동에게 적합한지도 살펴볼 것이다.

북한 국어 교과서는 김정은 시기 소학교 1, 2, 3학년 교과서를 먼저 살

펴본다. 소학교 국어 교과서는 삽화로 구성된 내용의 적절성을 보기 위한 것이므로 흑백 사진으로 복사 상태가 좋지 않은 김정은 전 시기 교과서는 제외한다. 저학년 국어 교과서 내용은 주로 글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 많으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삽화를 통해 ‘원쑤’의식화 교육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저학년 학생의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삽화가 많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북한 자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김정은 시기 새롭게 개편된 국어 교과서 중에서 소학교 1, 2, 3학년 국어 교과서의 삽화를 살펴볼 것이다. 초급중학교 국어, 고급중학교 문학 교과서는 ‘원쑤’의식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전후 시기 국어 교과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만을 추출하여 모두 살펴볼 것이다.

분단된 나라에 사는 남북한 주민은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며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교류와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단 후 서로에게 적개심¹⁾을 갖는 마음체계가 무엇 때문인지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본고는 북한 국어 교과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이 적개심을 유지하게 만드는 공적 통로라고 보았다. 따라서 분단을 지속시키는 적개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공생공존의 길’을 찾기 위해 북한 국어 교과서의 ‘원쑤’의식화 교육에 대한 면밀한 내용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 시대 국어교육은 ‘원쑤’의식화 교육에서 벗어나 용서와 화해,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 적개심은 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또는 적에 대하여 느끼는 분노와 증오를 이르는 말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적대심은 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북한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분노와 증오를 표현하고 싸우고자 하는 투쟁 정신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으로 ‘적개심’이 더 적합한 용어로 보았다. 또 일차적으로 적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증오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적용된다고 본바, 적개심은 적대심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보았다.

II. 체제유지를 위한 계급주의 교양 교육에서의 ‘원췌’의식화 교육

남한의 근대 학교 교육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르치기 위해 교련과목을 개설하고 반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남남갈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남한 내에서도 ‘중북, 좌파, 빨갱이’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상당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남한 학교 교육에는 적개심 관련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북한 학교 교육은 국어 교과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원췌’에 대한 분노와 증오, 투쟁 정신을 갖도록 교육한다.²⁾ 이때의 ‘원췌’는 적개심의 대상이며 ‘남녘 괴뢰군, 일제, 미국놈, 지주자본가, 봉건주의자’ 등으로 북한 국어 교과서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 국어 교과서의 ‘원췌’에 대한 의식화 교육은 적대적 감정을 키우고 투쟁의식을 갖도록 하는 적개심교육과 관련된다. 이 교육은 적으로 규정된 원췌에게 적개심을 투사하여 ‘원췌³⁾ 의식’을 가지게 만드는데, 송명희(2016)는 적에 대한 이러한 감정을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설명한 ‘아브젝시옹’으로 표현하였다. 프랑스어 아브젝시옹(abjection)은 ‘폐기, 혐오, 비천한 것, 방기, 폐기물’ 등을 번역한 것(김종곤, 2018: 12)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아브젝시옹은 공포 권력에 대해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체성, 체계, 질서를 무너지게 하고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카롤린 엠케, 2016; 정지인, 2017: 23-79). 또 주체가

2) 지다솔(2015: 9)에서는 10명의 북한 이탈 청소년의 소학교 경험에 관해 질적 연구하였다. 계급주의 교양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사상 교육을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 중략 - 김일성·김정일의 ‘위대함’에 대해 감정적인 확신을 형성하고, 미국, 일본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내면화하였다고 말한다. 또 특정한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원췌’로 여기는 감정적인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이었다고 증언하였다.

3) 북한에서 통치자는 ‘원수’로, 적은 ‘원췌’로 표현한다.

언어의 상징질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혹은 언어화되지 못한, 언어화 이전의 존재하는 것에 기반하여 필연적으로 혐오와 역겨움을 가지게 되는 개념이며 주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항하는 존재의 격렬한 반항이라고도 설명하였다.

북한의 국어 교과서를 통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적으로 규정된 ‘원썩’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아브제시옹(abjection)’(송명희, 2016)의 감정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교육이다. 또 ‘원썩’을 아브제시옹으로 취급하여 집단 폭력성을 가지는 것을 정당화한다. 무엇보다 북한 학생이 국어 교과서를 통해 받게 되는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아브제시옹과 같이 ‘원썩’에게 가져야 하는 적개심을 학교 교육을 통해 공식화한다. 학생들의 생활영역 곳곳에 ‘원썩’에 대한 적개심을 키울만한 상징적 증거물을 만들어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다. 아브제시옹으로 불안, 공포, 불편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데 이런 감정은 ‘원썩’의식화 교육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므로, ‘원썩’을 제거해 줄 주체의 태양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더욱 충성을 다짐하게 만들어 ‘원썩’의식화 교육을 정당화한다. 이처럼 북한 국어교육의 ‘원썩’의식화 교육은 왜곡된 신념을 만들어 분단을 지속시키고 평화로운 공생공존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국어 교과서에 표현된 ‘원썩’의식화 교육을 살펴보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전환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원썩’의식화 교육은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일성 교시에 의한 ‘사회주의 교육테제’의 정치사상 교양 교육 중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말한다. 이를 언어교육인 국어교육에서 다양한 갈래를 통해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임성우(2012)는 언어 표현을 통해 집단 감정을 읽어내고자 했는데 언어가 사유, 감정, 열정 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북한의 정치사상 교양 교육 중 계급주의 교양 교육이 표현하고 있는 ‘원썩’의식화 교육은 부정적 측면의 사유, 감정, 투쟁의 열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언어교과인 국어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해 언어교육의 집단 감정과 관련한 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의 국어교육은 김일성이 교시한 ‘사회주의 교육테제’에 근거한다.

사회주의 교육테제는 교육 관련 김일성 지시들을 모아 1977년 9월 5일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문서이다(엄인영, 2019: 186-18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첫 체계에서 사회주의 교육의 본질과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 교육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에 대해 밝히시었다.(중략)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김일성, 1986: 374).

사회주의 교육테제는 북한 학교 교육의 본질, 원리,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 학교 교육의 근간이다. 북한은 매년 9월 5일⁴⁾을 ‘사회주의 교육테제’의 날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한다. 로동신문 1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그림 1〉로동신문 1면에 제시된 사회주의 교육테제

- 4) 2019년 9월 5일, 로동신문 1면은 김정은이 교시한 내용과 교육 관련 행사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다음은 로동신문 1면 제 248 호[루계 제 26487 호] 주체 108(2019)년 9월 5일(목요일) 관련 내용이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교육은 조국과 혁명의 미래를 가꾸는 영예로운 사업이며 가장 책임적이고 보람있는 사업입니다》

‘길이 빛나라, 주체교육발전의 자랑찬 행로여!’라는 제목으로 북한 주민이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테제에 관한 발표자료를 교육받고 있는 장면을 로동신문 1면에 제시⁵⁾하였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통치자 변화에 따라 교육테제의 표현에도 변화가 있다. 그러나 그 근본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며 강조하는 점에 따라 표현의 변화를 준 것이다. 김정일 시대에 강조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교육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 사회주의 도덕 교양 교육으로 표현이 달라졌다. 그러나 두 가지 내용 모두 조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도덕적 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교육테제에 근거한다.⁶⁾

사회주의 교육테제는 정치사상 교육, 과학기술 교육, 체육 교육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정치사상 교양 교육은 북한 교육에 중심으로 삼부자 세습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다(박찬석, 2013: 129-130). 북한은 교육테제를 바탕으로 1990년과 2004년에 교육법 제정과 개정, 2011년 보통교육법 제정, 2012년 고등교육법 제정을 정비하면서 통치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언어표현에 변화를 주었다(김지수, 2013: 68-69).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테제’는 김정일, 김정은으로 통치자가 계승되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여 국어 교과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강력한 통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송두록(2004)은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

5) 2018년 9월 5일 로동신문 1면의 자료이다. 로동신문 1면은 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나 행적만을 보도하기 때문에 로동신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면이다. 위 신문 1면에는 교육테제와 관련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주체의 교육강령이며,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교육에 참다운 길을 명시한 교육강령’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 ‘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천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 교육총서’라고 밝히고 있다.

6) 계승 발전된 테제의 내용은 ‘전문과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사회주의 교육 제도, 교육 기관의 임무, 역할 및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 교육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교육에서 주체사상 교양 교육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교육테제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교과서, 사회 전반의 사회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테제'에 대해 말하면서 그 내용 중 '3. 조직 생활, 정치 활동의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제시하였다.

조직생활은 사상 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 청소년 학생들은 소년단,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겨야 하며 조직 생활에서는 사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비판을 강화하여 한다

북한 청소년은 유치원 고급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의 12년 의무교육 기간에 소년단원과 청년 동맹원으로 조직 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테제에 근거한 정치사상 교양 교육 중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조직 생활과 학교를 통해 교육받으면서 '원수'에 대해 분노, 증오, 혐오, 원한, 미움을 갖게 된다.

송두록(2004)은 사회주의 교육테제의 정치사상 교양 교육에 대해 남한식 띄어쓰기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정치사상 교양 교육 관련 내용(김일성, 1979: 384)

〈2.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1) 정치사상 교양

정치사상 교양은 사회주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사상 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중략) 당 정책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은 당에 대한 1)충실성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중략)

공산주의 사상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노동 계급의식이며 공산주의 교양에서의 기본은 2)계급주의 교양이다. 계급 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확고한 노동 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노동 계급의 입장에 튼튼히 서서 노동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의 원수들을 미워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중략)

3)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원칙이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의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4)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기의 책상과 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와 사회의 모든 공동 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간지게 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3. 사회주의 교육 방법〉

(4)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결합

학생 소년 궁전, 학생 소년 회관, 소년단 야영소, 도서관을 비롯한 사회 교양 시설들은 학생 교양의 믿음직한 기지이며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중략)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은 매우 크다. 방송, 출판물, 영화의 내용을 혁명적인 것으로 일관시키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 기풍을 철저히 세워 학생들이 사회에서 보고 듣는 것이 다 교육이 되고 교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학교 전 교육, 학교 교육, 성인 교육의 병진

사회주의 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동안 교육하는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위 〈표 1〉과 같이 사회주의 교육테제에 근거한 정치사상 교양 교육은 크게 1) 충실성, 2) 계급주의, 3) 집단주의, 4)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교육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에서는 위 〈표 1〉에 근거한 정치사상 교양 교육의 2)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위한 ‘원쑤’의식화 교육과 관련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과서 분석들은 <표 1>에 근거한 정치사상 교양 교육 중 2) 계급주의 교양 교육만을 추출하여 III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김정은이 통치자가 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은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성지’라고 불리는 신천박물관을 재건하면서 전 인민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회에서 보고 듣는 것이 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관련하여 위 <표 1>의 ‘3. 사회주의 교육 방법’에서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결합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송, 출판물, 영화의 내용을 혁명적인 것으로 일관시켜 학생들이 사회에서 보고 듣는 것이 다 교육이 되고 교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이 관점에서 학생들의 생활영역 곳곳에 노출되어 있다. 학교, 박물관, 방송, 집 주변 동상이 있는 곳 등 사회 전 영역이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현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이탈주민 은수(가명)⁷⁾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유치원 때 방공호 훈련을 받았어요. 헬기를 띄워 놓고 피하게 해요. 또 땅속으로 피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 비행기는 미국 비행기야! 미군은 항상 전쟁준비를 해’라고 설명해 주셨던 일이 생각나요. 유치원 때부터 미군, 남한에 대한 적개심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주로 ‘남조선 괴뢰군이라고……’ 유치원 때 폭탄을 흙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미군 머리에 맞추기 놀이하면서 놀았어요. 그 모형 인형에는 ‘미국’이라고 쓰여 있었고 코가 커요. 코가 진짜 컸어요. 그리고 소학교 체육대회 할 때 그 놀이를 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소학교 2-2학기 제23과 미제승냥이)선교사 ‘페스머눔’

-
- 7) ‘은수(가명)’는 중학교 시절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에 오랜 기간 머물다 남한으로 왔다. 지금은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2019년 10월 1일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그가 다니는 E 대학교에서 인터뷰하였다.

‘원썬’은 정말 끔찍하게 싫었어요. 유치원 때 영화로 보았는데, 선교사가 너무 싫었어요. 유치원 벽면에도 그놈 사진, 미군에게 고문당하는 소년 사진……등이 붙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싸우자’ 뭐 이런 구호를 다 함께 외쳤어요. 소학교에서도 ‘원썬’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배웠어요. 저는 이미 유치원 때 들었거나, 봤던 사진들이 교과서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유치원 시절부터 ‘원썬’만 생각하면 ‘끔찍하게 싫어지는’ 아브렉시옹의 ‘원썬’의식화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일상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원썬’의식화 교육이 스며들게 되는데 ‘원썬’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총을 쏘거나 쓰러뜨리는 등의 ‘투쟁적 혁명군 놀이’를 하는 것이다. 이 놀이는 교과서에도 등장하지만 아이들의 일상에서도 자주 하는 놀이다. 또 ‘원썬’에 대한 그림과 사진을 아이들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놓고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한다. 북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생활 밀착형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는 유치원 과정부부터 배웠던 ‘소학교 2-1, 제23과 미제승냥이’와 같은 내용을 ‘실화’라고 믿도록 반복하여 교육하면서, ‘미제, 일제, 남조선 괴뢰군’ 등에 대한 투쟁 정신을 더욱 강력하게 형성시킨다.

북한 청소년은 첫 번째 조직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년단 입단⁸⁾ 시기인 소학교 2학년 전후 계급주의 교양 교육으로 더욱 강력하게 무장된다.⁹⁾

8) 지다솔(2015: 82)의 논의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으로 정치조직인 소년단에 입단하여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활동에 참여하였고 말한다. 이들은 2학년이 되는 해의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조선소년단 창립절인 6월 6일에 소년단 입단이 진행되며 총 3차에 걸친 순차적인 입단을 경험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연구자가 인터뷰한 ‘은수’의 증언에서와 유사하였다.

9) 위 ‘각주 7’ 은수와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본인은 소년단원에 쉽게 들어 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학교에 토끼, 나무, 석유 등 많은 것을 갖다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친구들보다 빨리 소년 단원에 입단하게 되면서 부러움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소년단원 입단시기에 ‘원썬’의식화 교육으로 무장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급중학교 2학년쯤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도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강조된다.

계급주의 교양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실화’라고 믿으며 성장한 ‘은준’¹⁰⁾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배워요. 유치원에 가면 계급 교양과 관련된 그림이 많아요. 그 앞에서 ‘미제 원쑤놈을 물리치자’라는 구호 같은 것을 외쳐요. 미제 원쑤놈(소학교 2학년 2학기에 제시된 ‘제23과 미제승냥이’)과 관련한 그 이야기 우리는 실제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것을 완전히 믿어요. 적개심에 불타지요. 유치원, 학교 건물 곳곳에 혁명자료가 많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주지본가들도 많아요.

지금은 혼란스러워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북한에서 말하는 것, 남한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속이는 것이 많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6월 25일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고 하던데……북한에서는 미군과 연합해서 남한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신천박물관에 견학을 가는데, 거기 가면 실제로 피비린내가 아직도 나요. 북한은 그런 장소를 그대로 나뒀거든요.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곳곳에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위한 상징적 형상물을 만들어 놓고 북한 주민을 교육하고 있다. ‘은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은준’은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신천박물관에 가면 실제로 피비린내가 난다고 믿고 있었다. ‘신천박물관

10) 2016년 북한을 이탈한 ‘은준’과의 인터뷰는 2019년 10월 25일 19시부터 20시 E 대학에서 실시하였다. 그는 북한에서 엘리트만 다닐 수 있다는 대학을 나왔고 남한에 와서도 대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북한을 이탈한 지 오래되지 않아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남한에서 배우는 내용이 달라 아직도 혼란스럽다고 했다.

관'은 북한 주민에게 '원썩'로 규정된 미군에 대한 증오를 극대화하도록 증거물을 만들어 놓았다. 미군이 모자(母子)를 불태워 죽였다는 학살현장을 만들어 놓고 그 현장에서 생존했다는 사람이 그때의 일을 증언하도록 하고 있다. 전시실마다 북한 주민이 이를 믿을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의 사진과 편지, 증언 자료, 유물 등을 전시해 놓았다. 또 잔혹한 행위를 한 미군임을 보여주기 위해 밀랍인형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해 두었다. 북한 주민은 이곳을 견학함으로써 교과서에서 배웠던 '원썩'에 대한 적개심을 극대화하고 있다. 다음은 신천박물관에 관한 보도 자료이다.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하여 '미국은 승냥이(Tibetan wolf)'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계급 교양과 그를 위해 설립된 신천박물관이 있다. 북한에서 신천은 반미교육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도 기회가 있으면 신천박물관을 찾아 미제는 인간의 탈을 쓴 승냥이로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원썩”라고 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2014년 11월 반미 교육시설인 신천박물관을 방문해 미국을 직접 비난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미국) 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 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적에 대한 털끝만한 환상을 가진다면 혁명을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당국은 주민결속과 충성 유도 교양을 위하여 미제 침략자 반대교양을 진행하면서 미군이 6·25전쟁 기간 중 신천에서 대학살을 자행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미국에 대해 끊임없는 증오를 유발시켜 오직 노동당과 수령에만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신천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반미교육을 하여 왔다(조현, 2018).

유투브의 '민족통신'은 신천박물관을 선전 선동하는 북한 안내자의 소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다.



“신천당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피맺힌 원한이 스며있는 곳이며 신천박물관은 20세기의 식인종인 승냥이 미제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역사적인 단죄장입니다. 김정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은 이 땅에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이 남아있는한 계속하여야 할 사업인것만큼 신천박물관을 잘 꾸미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어린이들의 피나는 절구’라는 제목의 사진자료 전시물이다. 실제 인물의 증명사진과 당시 상황으로 보이는 사진을 전시해 두었다. 사진 앞에는 ‘USA’라고 적힌 기름통이 모든 불행을 만든 원인인 양 놓여있다.



‘미제승냥이’로 상징화된 미군에 의해 잔혹하게 학살당하는 소년을 실제처럼 그려 전시하였다. 이 그림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계급주의 교양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며, 유치원 때부터 보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장소 신천박물관의 전시물(민족통신, 2019. 10. 24.)

〈그림 2〉는 신천박물관이 김정일, 김정은 교시에 의한 곳이며 북한 주민이라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준(가명)’ 역시 견학을 통해 이곳의 교육 내용을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 학교 교육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왜곡된 증거물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원췌’에 대한 투쟁 정신을 의식화하여 북한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만 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로동신문을 통해 계급주의 교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자주 보도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로동신문의 보도 자료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

수품호에서린원한

수품호에서린원한

수품호에서린원한

수품호에서린원한

(그림 3) 노동신문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과 관련한 보도 자료¹¹⁾

노동신문의 제목은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것이 반체계급교양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문의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일제는 지난날 수십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씌운 철천지원수입니다.》

노동신문은 계급주의 교양 교육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평안북도계급교양관’을 찾아 전시된 증거물 앞에서 ‘원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있는 현장을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췌’의식화 교육은 역사적 증거물을 토

11) 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세기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제는 인간의 정상적인 두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살인만행들을 수없이 저질렀다”(노동신문-주체107(2018)년 12월 6일(목요일) (5면)).

“수품호에 서린 원한: 우리는 얼마전 평안북도계급교양관을 찾았다. 도계급교양관은 수많은 참관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이 어려있었다”(노동신문-주체107(2018)년 12월 6일(목요일) (5면)).

대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꾸며진다. 북한은 지역 곳곳에 역사적 증거물을 만들고 계급주의 교양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홍성민(2015: 21-30)은 개인은 높은 수준의 집단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표상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추모제, 기념물, 동상들을 활용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북한은 전쟁 경험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원쑤’에 대한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학교 교육과 삶의 영역 곳곳을 활용하고 있다. 통일 시대 미래 학교 교육에서는 이러한 교육에 노출되었던 학생들에게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전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국어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 국어 교과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분단이 지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원쑤’에 대한 의식화 교육이 집단의 기억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원쑤’에 대한 집단의식은 상처의 기억과 담론 그리고 감정 대상의 표상, 이미지를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고 의식화 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분단국가는 사회적 의례와 전시 공간, 교육, 대중문화 등을 통해 전쟁의 기억을 소환하고 상대에 대한 악마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원쑤’에 대한 투쟁적 의식을 고취시킨다(홍성민, 2015: 21-30). 이런 점에서 ‘원쑤’에 대한 적개심은 역사적 산물이며 재생산되는 사회문화적 감정이 된다. 북한의 국어 교과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입은 상처를 중심으로 원한과 증오의 감정을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고 상대를 절대 악으로 규정한다. 또 자신은 그러한 절대 악에 맞서 승고한 투쟁을 하는 절대 선으로 상대화하여 ‘원쑤’에 대한 투쟁적 결의를 다진다. 그래서 북한 국어 교과서에 표상화된 ‘원쑤’에 대한 적개심은 악에 반대하고 선을 수호한다는 정의의 실천적 감정이 되어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으로 규정된다. 북한의 국어교육 혹은 각종 사회 행사는 통일과 평화를 말하지만, 그 실체를 보면 전쟁의 상처와 적에 대한 적개심을 일으키기 위한 행사가 많다. 북한의 학교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 매체인 영화, 음악, 그림 등은 전쟁이 남긴 상처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원쑤’에 대한 잔인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교

육을 통해 ‘원썩’에 대한 투쟁의식을 내재화하도록 만든다. 특히 북한의 소학교 어린 학생의 경우 ‘원썩’에 대한 적개심이 그림 이미지를 통해 감정의 체계로 자리 잡고 도덕적 판단 기준이 된다.

북한은 당의 명령에 따라 상시적인 감시와 처벌을 시행하며 공포정치를 일상화해 왔다. 북한 청소년은 불만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포 정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에 충성을 다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적으로 합당한 판단과 실천을 했다고 믿는다. 즉 스스로 심리적 불균형을 좁혀 감정의 고통을 피하며 내적 검열을 조정하고 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교육에 스스로 조종되는 것이다. 문성규(2012: 171-173)는 북한국민이 되려면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서 분단 적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분단의 감정공동체는 집합적인 감정규범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면서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북한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교과서 내용은 공식적으로 ‘원썩’에 대한 감정규범을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감정공동체의 공적 통로가 된다. 따라서 북한 국어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전환 관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I. 북한 국어 교과서의 ‘원썩’의식화 교육 내용분석과 전환 관점

북한 국어 교과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일 시대 국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전환의 관점을 찾고자 한다. 통일 시대에는 새로운 교육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을 위해서 ‘II장의 <표 1>’를 기준으로 계급주의 교양 교육만을 추출하여 <표 2>와 같이 분석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2〉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쑤’의식화 교육 관련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기준

분석 요소	계급주의 교양 교육 분석내용
계급주의 교양 교육	1) 모든 학생들이 확고한 로동 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로동 계급의 입장에 튼튼히 서서 로동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급의 리익을 위해 몸 바쳐 투쟁하는 내용 2) 특히 혁명의 원쑤들을 미워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쑤들을 미워하는 내용

1. 소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 삽화를 통한 계급주의 교양 교육

소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 삽화를 통한 계급주의 교양 교육 분석은 〈표 2〉를 기준으로 소학교 1, 2-1, 2-2, 3-1, 3-2학기 교과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소학교는 남한 초등학교보다 1년 일찍 입학하는데 7세부터 1학년이 시작된다. 3학년은 9세가 되는데, 7세부터 9세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계급주의 교양 교육이 적절한지 교과서 삽화를 통해 확인해 보고 문제점을 인식하고자 한다.

북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유치원 과정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학교 교육에서 쓰이는 국어 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해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 내용은 제외하였다. 소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 삽화를 중심으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쑤’의식화 교육 내용분석을 하였는데 학령기 아동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림이 많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교과서 분석을 위해 인쇄 상태가 괜찮은 김정은 시기 개편된 소학교 1, 2, 3학년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소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소학교 국어 교과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단원 구성

학년	총단원	계급주의
소학교 1	19	4
소학교 2-1	15	1
소학교 2-2	13	5
소학교 3-1	16	5
소학교 3-2	13	3

북한 소학교 학생의 첫 번째 조직 생활은 소년단에 입단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입단은 빠르면 1학년 말부터 시작되어 2, 3학년에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위 〈표 3〉의 소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소학교의 경우 초급중학교나 고급중학교에 비해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소년단 입단이 본격화 되는 2, 3학년 시기에 계급주의 교양 교육이 다소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입단 전에 ‘원쑤’의식화 교육을 통한 투쟁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삽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면의 부족으로 일부분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소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원쑤’의식화 교육관련 삽화(교육도서출판사, 주제 102)

차례	삽화	차례	삽화
제2과. 아이 (10쪽)		제11과. 왜 자꾸 걱정할까 (126- 129쪽)	
제14과. 자랑높은 백두산 (174쪽)		제18과. 칭찬이 끝없어요 (232쪽)	

〈표 5〉 소학교 2-1학기 국어 교과서의 '원췌'의식화 교육관련 삽화(교육도서출판사, 주체 103)

차례	삽화	차례	삽화
제1과. 공화국 기발 (6쪽)		(12쪽)	

〈표 6〉 소학교 2-2학기 국어 교과서의 '원췌'의식화 교육관련 삽화(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3)

차례	삽화	차례	삽화
제17과. 항복의 손 부들부들 (10-11쪽)		(16-17쪽)	
(21쪽)		제23과. 미제 승냥이 (78쪽)	
(79쪽)		(90쪽)	
제26과. 혁명군 놀이 (114- 123쪽)		(123쪽)	
제27과. 마음의 홈자리 (137- 138쪽)		제28과. 자신있게 말할수 있어요 (146- 152쪽)	

〈표 7〉 소학교 3-1학기 국어 교과서의 ‘원쑤’의식화 교육관련 삽화(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3)

차례	삽화	차례	삽화
제4과. 금순이는 아홉 살이었다 (29-41쪽)		(41쪽)	

〈표 8〉 소학교 3-2학기 국어 교과서의 ‘원쑤’의식화 교육관련 삽화(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3)

차례	삽화	차례	삽화
제20과. 등장인물과 꼭같이 말해보자요 (48-55쪽)		제21과. 그림 《학교가 그리웁건 만》을 보며 (61-70쪽)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쑤’의식화 교육을 위한 소학교 국어 교과서 삽화의 경우 학령기 아동의 발달 과정상 적절한지에 관한 비판적 인식이 필요하다. ‘원쑤’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갖도록 교육하기 위해 7-9세¹²⁾의 어린 학생에게 위 〈표 4-8〉의 삽화와 같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자주 노출시킨다.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 학교 수업 현장에서도 교과서 삽화 내용과 유사한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원쑤’를 향한 폭력성이 정당화되고 아브제시옹이 더욱 강화된다. ‘II장’의 ‘은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표 4〉의 ‘제2과. 아이’단원과 같이 ‘원쑤’를 형상화한 인형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교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삽화를 통해 익수해진 폭력적 행위는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적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아브제시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 삽화와 관련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크게

12) 북한은 6세, 고급반 유치원 과정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된다. 소학교 1학년은 7세부터이다.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북한 병사가 총을 들고 ‘원썩’을 무찌르거나, 항복을 받아내는 삽화이다. 이는 ‘원썩’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과 투쟁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식화 교육에 해당한다. 둘째,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 착취와 관련한 삽화이다. <표 5>의 ‘제1과. 공화국기발, 12쪽’, <표 8>의 ‘제21과. 그림 《학교가 그리웁건만》, 61-71쪽’은 ‘봉건지배자, 부르주아’가 어린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삽화로 구성한 것이다. 교과서 삽화 내용에서 주로 고통 받는 대상은 어린이, 노인, 여성이다. 사회적 약자로 표현되는 대상을 통해 ‘원썩’에 대한 잔인함을 더욱 강조하여 적개심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있다. 봉건지배자나 부르주아의 잔혹함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임을 강조하면서 주체의 태양이신 장군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강조하는 정치사상 교양 교육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셋째,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위해 동물캐릭터를 활용한다. 잔인함과 탐욕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큰 동물을, 지혜로움과 용감함을 강조하기 위해 작은 동물을 등장시킨다. 삽화 내용의 결론은 작은 동물이 큰 동물을 지혜로움과 용감함으로 이긴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괴롭히는 삽화를 부각시키는데 이를 통해 ‘원썩’의식화 교육이 더욱 강화된다. <표 6>, <표 8>에 등장하는 ‘미제 승냥이, 여우’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준다. 이에 반해 ‘다람이, 토끼, 고슴도치’는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고 용감하게 풀어나가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몸은 작지만 지혜롭고 용감하게 투쟁하면 이긴다’라는 계급주의 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이웃, 민족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부각시켜 ‘원썩’의 잔인함을 극대화하는 삽화이다. <표 7>의 ‘제4과. 금순이는 아홉 살이었습니다, 29-41쪽’은 ‘누이 혹은 동생’일 수 있는 어린 학생이 ‘원썩’에 의해 고문당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고문하는 대상은 ‘미제, 왜놈’ 등인데 이들의 잔인함을 더욱 강조하여 적개심을 증폭시킨다.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위한 소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 삽화내용은 학령기 아동에게 심리적 불안과 공포심을 심어주고 적개심을 강화하여 폭력을

정당화한다. 소학교 저학년 시기는 밝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다양한 가치를 배워가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총’을 도구삼아 수업을 받고 폭력적 놀이를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 소학교 저학년 학생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세상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의 사상만을 강요당하며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투쟁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 삽화 내용이 소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더불어 인권의 문제로 확대하여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이 전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소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 삽화 내용 분석을 통하여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췌’의식화 교육 관련 전환의 관점을 확인하였다. 소학교 2학년 2학기 ‘17과. 행복의 손 부들부들’ 단원의 ‘용서할가’와 관련한 삽화 내용이 그것이다. 이 과에서 ‘용서’와 관련한 표현은 ‘용서할가, 살려줄 행복의 손’이라 표현되었다. 계급주의 교양 교육 관련 삽화 내용은 대부분 ‘원췌’에 대한 적개심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소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에 유일하게 ‘용서할가’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다. 통일 시대를 지향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용서’에 관한 전환의 관점을 가지고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김정은 전후 시기 중등 국어, 문학 교과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

김정은 전후 시기 중등 국어, 문학 교과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위한 ‘원췌’의식화 교육 내용분석 기준은 <표 2>이다. 먼저 김정은 시기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였는데 정치사상 교양 교육의 계급주의 교육의 구성은 다음 <표 9>과 같다.

〈표 9〉 김정은 시기 정치사상 교양 교육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 내용 구성(엄인영 2019: 209)¹³⁾

학년 \ 사상	총단원	총실성	집단주의	계급주의	애국주의
국어 초급 중 1	24	11	5	4	7
국어 초급 중 2	25	11	3	9	4
문학 고급 중 1	대단원8/22	6	3	9	3
문학 고급 중 2	대단원7/19	6	7	9	3

〈표 9〉는 ‘엄인영(2019: 209)의 〈표 18〉’의 교과서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구성하였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것이므로 정치사상 교양 교육의 다른 요소도 함께 제시하여 계급주의 교양 교육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표 9〉를 통해 국어 교과서 정치사상 교양 교육의 전체 구성과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단위 구성을 비교할 수 있다. 초급중학교 국어와 고급중학교 문학은 교과서 구성이 달라 표도 다르게 구성하였다. 다음은 김정은 시기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교과서 분석 내용이다.

〈표 10〉 초급중학교 1학년 국어의 ‘원썩’의식화 교육(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2)

갈래	차례	학습내용	학습의 길 및 실천의 길
동요	제10과. 쫄쫄 녹았지 (리금단)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탁월한 군사전법에 걸려 쫄쫄 녹아난 미국놈들의 물골을 보여주는 동요를 정서적으로 읊고 파악해 봅시다/저녁은 신의주서 먹겠더냐/미국놈아 그래그래 무얼 먹었니(81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어(볼벼락)의 뜻을 밝혀 봅시다. ◆다음 단어들과 어울리는 말을 찾아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격멸-(전쟁이나 전투 등에서)적을 쳐 없애는 것. ㄴ) 소탕-무썰러서 쓸어없애는것. ㄷ) 섬멸-(적을)여지없이 무썰러서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 ◆동요에는 우리 나라를 먹겠다고 덤벼들었다가 녹아난 미국놈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까?(82쪽)

13) 〈표 9〉의 총단원 수와 개별 사상 수의 합이 맞지 않은 것은 중복된 사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 13〉도 동일하다.

우화	제12과. 악어의 눈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악어를 보니 원숭이의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불쑥 솟구쳤습니다/악어는 사나운 이발을 드러내며 징그럽게 웃었습니다/원숭이에 대한 동정심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채 원숭이는 죽고말았습니다(94-95쪽)	◆밀줄친 단어들의 뜻을 밝혀봅시다. ㄴ)그는 징그러운 미국놈뺨짝을 힘껏 후려갈겼다. ◆다음의 문장들에서 밀줄친 단어들의 뜻차이를 밝혀봅시다. ㄱ)아동단원 금순이는 불행하게 적들에게 체포되었지만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었다(96쪽)
이야기	제18과. 《총알은 유격대에 보내달라》	그때 전기육소년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일본놈은 우리 조선사람의 원수이고 당신들 중국사람의 원수이다. 할 말은 이것뿐이다.》(150-151쪽)	단어만들기수법 ①합침법 례: 조선사람, 항일혁명투쟁시기, 통신연락임무 ②덧붙임법 례: 물이군, 사형장
외국소설	제21과. 성냥파는 소녀 (안데르센)	소녀를 동정하여 동전 한푼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188-194쪽) 〈198쪽 실천의 길〉 2.성냥파는 소녀가 살던 사회에서 그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글에 담아봅시다.	◆문장속에서 단어의 뜻을 풀이해봅시다. ㄱ)그뿐아니라 소녀를 동정하여 동전 한푼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 단어들의 뜻차이를 밝혀봅시다. 일제놈들은 간삼봉에서 항일유격대에 의하여 수많은 죽음을 남겼다. 미제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라!

〈표 11〉 초급중학교 2학년 국어의 '원췌'의식화 교육(교육도서출판사 주재103)

갈래	차례	학습내용	학습의 길 및 실천의 길
동화	제3과. 까치와 여우	마음 착한 평네 집에 악독하기 그지없는 여우가 달려든것이었습니다. 어미평은 겨우 살아났으나 사흘만 있으면 귀여운 새끼들이 까나올 평알을 여우에게 몽땅 빼앗기고말았습니다.(16-23쪽)	야유법이란 단어나 문장의 뜻을 정반대로 표현하여 부정적인 것을 긍정대고 비꼬아주는 표현수법을 말합니다.(25쪽)
시	제8과. 천리 길에 미신 수레 (송봉렬)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면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받들고(중략) 웃음은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노래는 누구에게 짓밟혔느냐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무거운 나무짐 끄는 아이야...(59-60쪽)	◆다음 시행들의 표현적효과를 말해봅시다. ㄱ)웃음은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노래는 누구에게 짓밟혔느냐 ◆아래의 단어들중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찾고 그 공통점을 말해봅시다. 빼앗기다, 짓밟히다, 끌다, 묻히다, 기쁘다, 슬프다, 좋다(61-63쪽)

감 상 문 / 시	제9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파편에 중동이 부러진 나무들, 덩구는 미국놈 탄약상자와 해골이 그려져있는 철갑모, 험상스럽게 파헤쳐진 땅...(중략) 긴장된 구리빛얼굴과 노려보는 눈에서는 원수에 대한 증오가 이글이글 타번지고있습니다. (중략)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그토록 숭고한 자기희생성과 영웅성을 발휘할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심장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64-66쪽)	◆문장속에서 단어 《화구》의 뜻을 풀이해봅시다. ㄱ)적들의 기관총이 쏘아대는 화구가 눈앞에 보이였다. ㄴ)할아버지는 화구에 불쏘시개를 넣고 화불을 지피였다. ◆다음 문장과 시행의 표현적효과를 말해봅시다. ㄱ)파편에 중동이 부러진 나무들, 덩구는 미국놈 탄약상자와 해골이 그려져있는 철갑모, 험상스럽게 파헤쳐진 땅...(67쪽)														
단편 소설 /시	제10과. 행랑자식 (라도향)	억울하게 하루에 두 번씩이나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린 진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단편소설에서 받은 느낌을 말해봅시다. 그는 자기 아들을 때릴 때마다... 안방아래목에 앉아있는(중략) 하루에 두 번씩 매를 맞게 되니까 그 무엇이 원망스럽고 또 무엇을 저주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한참 얻어맞고 혼자 울었다. (69-78쪽)	2. 주인공 진태의 모습을 밝혀봅시다. ◆주인공 진태가 하루동안에 두 번씩이나 매를 맞게 된 이유를 말해봅시다. 실천의 길 1. 진태의 모습을 통하여 해방전 아동들의 불행한 처지와 자신의 생활을 대비하여 느낀 점과 결의를 말해봅시다. (79-81쪽)														
시	제12과. 장수와 검 (지홍길)	원수들 벌벌 떨게 하던 웅맹한 장수/싸움에서 이기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중략) 장수는 가슴을 찢으나 때는 늦었네 《죽어도 놓지 말아야 할 검을 놓은 탓에 검도 찔도 다 빼앗기고 목숨마저 잃는구나!》 천추에 새겨야 할 이 피의 교훈을 남기며/장수의 머리는 어깨와 영영 작별하고말았네(89-90쪽)	실천의 길 ◆다음 표에 알맞은 답을 써넣으면서 우화《악어의 눈물》과의 비교속에서 본문의 이야기 꾸밈의 특성을 밝혀봅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제목</th><th colspan="2">등장인물</th><th rowspan="2">죽음을 당하는 인물</th></tr> <tr> <th>힘센 인물</th><th>힘 약한 인물</th></tr> </thead> <tbody> <tr> <td>악어의 눈물</td><td></td><td></td><td></td></tr> <tr> <td>장수와 검</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제목	등장인물		죽음을 당하는 인물	힘센 인물	힘 약한 인물	악어의 눈물				장수와 검			
제목	등장인물		죽음을 당하는 인물														
	힘센 인물	힘 약한 인물															
악어의 눈물																	
장수와 검																	
이야기	제13과. 덕만이와 쇠돌이	나라에서는 놈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중략) 왜놈들은 피비린내를 맡은 이리떼처럼 성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중략) 《시라소니같은것들, 그것두 못 오르겠으면 성문을 파 허물라!》 (중략) 왜놈들을 모조리 활로 쏘죽히고 칼로 베어놓히고 창으로 꿰여 동댕이쳤습니다. (94-99쪽)	◆다음 문장에서 밑줄친 표현이 어떤 수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무엇을 비겨 나타낸 표현인가를 밝혀봅시다. ㄱ) 왜놈들은 피비린내를 맡은 이리떼처럼 성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ㄴ) 《시라소니같은것들, 그것두 못 오르겠으면 성문을 파 허물라!》(99-101쪽)														

	제14과. 순철이는 죽지 않았다 (신영길)	<p>며칠전 목포경찰서앞 담벽에 소년들이 글씨로 써여진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의 선언서전문이 붙어있었습니다.(오늘의 조무래가놈들까지 대드니 이거 죽을 지경이군.)</p> <p>《아저씨들! 싸울 준비는 되었습니까? 개새끼들이 물려옵니다. 제주도인민들이여!(103-108쪽)</p>	<p>2. 단편소설의 기본내용과 이야기줄거리를 밝혀봅시다.</p> <p>내용: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는 소년들을 잡기 위하여 미처날뛰는 경찰놈들에 대한 이야기</p> <p>◆다음의 문장들에서 존경토와 시간토를 찾아봅시다.</p> <p>ㄷ)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행복하게 살 통일의 그날을 위해 리승만괴뢰당을 반대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리고있는 제주도인민들의 가슴을 쓰러고 떠나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은 미여지도록 아팠습니다 (112쪽)</p>
동화	제18과. 거짓말이 진짜로 된 이야기 (김성현)	<p>변부자의 가소로운 꿈을 보던 마을사람들은 통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p> <p>《짐승만도 못한 놈. 나라야 어떻게 되든 저만 잘살아보겠다고 거짓말을 꾸며대더니 제 말대로 되고말았군》(2008년)(135-140쪽)</p>	<p>◆뜻이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 단어의 뜻을 풀이해봅시다.</p> <p>계면짜다, 가소롭다</p> <p>◆아래의 문장에서 과장법으로 써여진 표현을 찾고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가를 밝혀봅시다.</p> <p>ㄱ)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141-143쪽)</p>
단편소설	제20과. 날개 (전기영)	<p>단편소설을 읽고 항일무장투쟁시기(중략)《토벌대》놈들이 기여들었다고 알리는 보초소의 신호총소리를 듣고 금방 잠들었던 역순이가 동무들과 함께 초막밖으로 뛰쳐나왔을 때였다(중략)</p> <p>《한놈도 살려보내지 말라!》(중략)너는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 조선인민의 원수를 갚고 조국을 해방하는 훌륭한 혁명투사가 되어야 한다.(151-152쪽)</p>	<p>◆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어떤분이신가를 다음의 대목을 통하여 밝혀봅시다.</p> <p>ㄴ) 금순누나에게 소년중대원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는 대목(157쪽)</p> <p>〈나도 할수 있다〉</p> <p>◆다음 문장에서 품사의 갈래를 밝혀봅시다.</p> <p>ㄱ) 소년중대는 급히 앞산골짜기를 향해 컴컴한 수림속을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총소리는 점점 더 자지러지게 들려왔다.</p>

〈표 12〉 고금중학교 2학년 국어 문학의 ‘원수’의식화 교육(교육도서출판사 주제103)

차례	사상성	형태 및 단원	학습내용	사색과 실천 및 자체로 해보기
1. 주제 문학의 보물고		*작품설명	혁명혁명연극의 특성과 수령형상작품의 형상적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기초지식 : 5대혁명연극
	계급 교양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 딸에게서 온 편지	제4장은 허달수가 동생 달천에게 농사군은 죽자구나 하고 일만 하면 굶어죽진 않는다고 하면서 야학공부를 시비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제5장을 주었다.	내용과 형식에서 주제사상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한 《상황당》식혁명연극은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토 되고 있다.

1. 주체 문학의 보물고	계급 교양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구 :달에게서 온 편지	김로인: (심중히)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래두 모르면서 아는체 하다가는 바보가 되는걸세. 자칫하면 봉순이를 윤주사놈한테 팔아넘길번 하지 않았나(4-24쪽)	-사색과 실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달에게서 온 편지》는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본보기작품이다.(27-28쪽)
	총실성, 집단 주의, 계급 교양	장편서사시 :백두산 (조기천)	제1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홍산골전투를 승리로 이끄시는 내용(중략)교과서에서는 머리시와 제6장을 주었다. 오오 조상의 땅이여!/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얼마나 원한의 선혈로 당굴었더냐?(29-42쪽)	-사색과 실천 장편서사시《백두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 시인의 가슴속에서 스스로 우려나온 충동과 열망에 의하여 창작된 수령형상문학의 성과작이다. 1.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밝혀보자. ㄴ)백두산호랑이에 대한 형상적비유와 H시전투장면을 통하여 사상을 밝혀보자.(44쪽)
3. 시대와 문학	*작품 설명		협동화의 종소리 높이 울리고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한 영웅적시대!	
	계급 교양, 집단 주의 교양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천세봉)	제1부는 조국해방전쟁이 승리한 후부터 다음해까지의 1년 남짓한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 주인공 김창혁은 어린 딸 하나만 남고 온 식솔이 미제아수들의 폭격에 희생된 가슴아픈 사실에 접하고 농촌핵심들과 힘을 합쳐 계급적원수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서개울땅에 광명농업혁명조합을 조직한다.(99-111쪽)	-사색과 실천 장편소설《석개울의 새봄》은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으로 그려낸 현대소설문학의 성과작이다. (113-115쪽)
5. 과학과 우리 생활	*작품설명		최첨단돌파의 주인공들이 힘있게 자라날 때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은 더 빨리 밝아오게 될 것이다.	
	총실성, 계급 교양	실화 :꿈을 실현한 과학자	일제식민지 통치시기에도 살고 해방후 미제가 주인행세를 하는 남조선의《군정》통치에서도 살면서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참다운 어머니조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리승기의 심장의 목소리였다.(185-196쪽)	-기초지식·실화 실화의 특성은 우선 인간들의 전형적인 성격과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통하여 독자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이라는데 있다.(197쪽)
		장편 실화소설 :탐구자의 한생(리규택)	《보석은 빛발을 받다》는 해방후 주인공의 생활과 운명을 그리고 있다. 해방후 수원농사시험장에서 일하던 주인공은 미제가 주인행세를 하는	-사색과 실천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몽상원사를 반동학자라고한 배운권의 그릇된 주장과 그속에 담긴 불

			남조선에 침을 뱉고 평양으로 와서 보람찬 연구사업을 벌린다. (199-211쪽)	순한 목적을 날날이 발가놓으시여 계응상원사의 정치적생명과 과학적 신념을 지켜주신데 대하여 말해보 자.(212쪽)
6. 민 족 문 학 유 산 의 갈 피 에 서		*작품설명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에 외 세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어제날의 비참한 모습을 민족문학유산의 갈 피에 눈물겹게 비껴있다/일제에게 우리 말과 글마저 빼앗겼던 그 암담 한 속에서도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 해 노력한 해방전 진보적문학에 대 해서 학습하게 된다.	
	사회 주의 애국 주의, 계급 교양	서정시 :초혼 (김소월)	〈작가소개〉 김소월은 해방전 빼앗긴 조국에 대 한 애달픈 감정을 수많은 시편들에 담은 향토시인이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가난한 사람 들의 불행과 비극적처지를 뜨겁게 동정하고 그들에게 빈궁과 죽음을 강요한 착취자들과 착취사회의 부 정면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으나 비판자체에 그치고말았으며 사회악 의 근원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 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였다.(213- 214쪽)	-사색과 실천 이 작품은 조국을 빼앗긴 통분한 심 정을 절절하게 토로하면서 원수들 에 대한 울분을 노래한 비판적사실 주의문학의 대표작이다.(216쪽)
		단편소설 :탈출기 (최서해)	군의 가족이 사람들 발아래서 짓밟 히는 것을 생각할 때 군의 가슴안들 어찌 편하랴.(217쪽) 〈작가 소개〉 그의 소설은 당시 우리 인민이 겪는 비참한 생활과 비극적운명을 생동 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계급적건 지에서 분석하고 착취자와 억압자 들에 대한 저주와 증오, 항거의 정 신을 반영하였다.(227쪽)	-사색과 실천 이 작품은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들의 비참 한 생활처지와 불합리한 사회현실 을 계급적각도에서 비판하고 현실 에서 각성하고 반항의 길로 나가는 주인공을 형상한 작품이다.(228쪽)
7. 세 계 명 작 감 상		*작품설명	온갖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고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착취사회의 반동 적본질을 더 깊이 깨달고 세계의 진 보적문학작품들에 대한 풍부한 지 식을 가지게 된다.	
	계급 교양, 사회 주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 (빅토르 유고)	〈작품소개〉 《레미제라블》이란 우리 말로 《버림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다. 소설은 자비심과 인간의 도덕적완성을 통	-감상과 실천 장 발장과 꼬제트는 당대 사회의 어 떤 계급을 대표하고있으며 그들이 겪는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7. 세 계 명 작 감 상	애국 주의		하여 자본주의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악과 불행을 없앨수 있으리라는 견해를 표현하였다.(245쪽)	가?(246쪽)
	계급 교양	장편소설 :우제니 그랑데 (오노레 드 발자크)	〈작품소개〉 작품은 사회악의 근원과 그로부터의 출로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시초축적기의 부르주아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의 일단을 깊이있게 발가낸 것으로 하여 19세기 전반기 프랑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대표적 작품의 하나로 되었다(257쪽)	-감상과 실천 1. 그랑데의 린색하고 수전노적본성이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는가를 말해보자(258쪽)

교과서 내용에서 적개심의 표현은 ‘빼앗기고 짓밟히고, 끌려가고 묻히는 적대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다. 이런 억울한 감정을 만드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동물은 주로 ‘승냥이, 시라소니, 악어, 호랑이’ 등과 같이 큰 동물이다. 이에 반해 고슴도치, 원숭이, 새 등의 작은 동물은 큰 동물로 상징화된 ‘원썹’에게 고통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자신과 집단을 괴롭히는 큰 동물을 지혜롭게 물리친다는 이야기로 구성되는데 이는 소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삽화 구성과 유사하다.

초급중학교 2학년의 ‘제14과. 순철이는 죽지 않았다(신영길)’¹⁴⁾와 관련한 내용은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의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행복하게 살 통일의 그날’을 말하고 있다. 북한은 분단 이후 교육을 통해 ‘통일’을 강조해 왔다. 이때 함께 사용되는 단어는 주로 ‘우리민족끼리’인데 그 의미는 ‘김일성민족’을 말하는 것으로 ‘통일의 그날을 위해 리승만괴뢰당¹⁵⁾을 반대하여 피어린 투쟁’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야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김정은 시기 국어 교과서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다.

14) 초급중학교 2 국어에 나타난 계급주의 교양 교육(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3(2014: 112)

15) 북한에서 말하는 통일은 ‘남조선괴뢰군에게서 남한 주민을 구해내는 것’이었다고 북한 이 탈주민 ‘은준’은 말하였다(인터뷰: 2019년 10월 25일 19시부터 20시 E 대학에서 실시).

이때의 ‘리승만괴뢰당’은 역사적 상황이며 오늘날에는 ‘남조선괴뢰’로 표현되어 여전히 ‘원썬’으로 규정된 투쟁의 대상이다.

김정은 시대 초급중학교 국어, 고급중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전환의 관점은 초급중학교 1학년 ‘제12과 악어의 눈물’과 고급중학교 2학년 문학의 ‘7. 세계명작감상의 레미제라블’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초급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우화의 내용에서는 ‘동정심’에 대한 화두가 있다. 이때의 동정심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통일시대를 위한 전환의 관점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급중학교 2학년 문학의 ‘7. 세계명작감상의 레미제라블’에서는 자비심과 인간의 도덕적 완성에 대한 관점이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결국 자본주의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악으로 규정된 불행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도덕적 가치에 관해서는 전환의 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표 2>를 기준으로 김정은 전 시기 국어 교과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위한 ‘원썬’의식화 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고등중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의 구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김정은 전 시기 정치사상 교양 교육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 내용 구성(엄인영 2019: 209)

학년 \ 사상	총 단원	총실성	집단주의	계급주의	애국주의
국어 중 1	43	28	4	12	3
국어 중 2	43	24	11	8	4
국어 중 3	29	19	2	10	0
문학 고등중 4	대단원8/42	2	11	33	1
문학 고등중 5	대단원7/32	7	9	19	0
문학 고등중 6	대단원6/23	16	6	7	0

김정은 전 시기 국어 교과서 문학 고등중학교 4학년을 배우는 시기는

북한 학생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때이다. 이때 <표 13>와 같이 계급주의 교양 교육이 뚜렷하게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중심으로 김정은 전시대 국어, 문학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김정은 시대 교과서가 개편되어 이를 중심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반복제시되는 제재와 내용이 많아 김정은 전 시대도 함께 살펴보았다. 김정은 전 시기라도 전환의 관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과 지면의 부족을 고려하여 3개의 단원만 추려 구성하였다.

<표 14>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원췌'의식화 교육(교육도서출판사 주체 93)

기능	제목	작품 및 수업내용
글 (읽기 교재)	3. 자동차는 전선으로 달린다(김룡익)	원췌 미제놈들을 때려부스며 나아가던 날(중략)(아무려면 내가 죽을 라구요. 미제놈들의 눈같은 짙은 동태눈썹이예요(10-16쪽))
일기 (읽기 교재)	22. 《포사격을 나에게로!》	인민군대아저씨들은 미제원췌놈들을 족쳐대고 351고지를 점령하였습니다.(중략)원췌놈들은 이리떼처럼 덤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췌놈들을 노려보는 그들의 눈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이글거렸습니다.(중략) 무전수 아저씨의 두눈에는 미제원췌놈들에 대한 증오의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61-65쪽)
글 (말하기 교재)	41. 통일의 문을 열자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민족도 하나, 조국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미제에 의하여 나라가 허리를 끊기운채 둘로 갈라져있습니다.(중략)강변을 순찰하던 미제승냥이놈들이 달려와 그를 총탄으로 때리고 구두발로 차며 끌고갔습니다.(중략)그런데 우리 인민들이 그처럼 바라는 조국은 미제에 의하여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였습니다 팔을 들면 서로 마주잡을 듯, 발을 들면 저편 강기슭에 건너설 듯 한 지척의 남녘땅, 한 조상의 피를 이어 대대로 화목하게 살아왔고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강건너마음이 오늘은 왜 이다지 멀고 아득하던 말 입니까(128-130)

<표 15>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원췌'의식화 교육(교육도서출판사 주체 92)

기능	제목	작품 및 수업내용
글 (읽기 교재)	3. 총소리 (문희준)	일제《토벌대》놈들에게 붙잡혀가는 혁철이의 마음은 울고 싶도록 분했다.(중략)감시병놈은 구두발로 할아버지를 힘껏 내쳤다. 할아버지는 그만 쓰러졌다. 그러나 그러잡은 총만은 놓지 않고 있었다(9-14쪽)

갑상문 (글짓기 교재)	26. 원한에 찬 소년의 모습	착취계급들이란 어느 놈이나 다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 먹는 흡혈귀를 입니다. 이놈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로동자, 농민들이 절대로 행복하 게 살 수 없습니다.(중략)나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착취사회 에서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온 지난 날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84- 88쪽)
글 (읽기 교재)	32. 마란과 마술봇(외국작품)	왕과 줄개들은 모두 바다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110-114 쪽)

〈표 16〉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의 '원쑤'의식화 교육(교육도서출판사 주체 91)

기능	제목	작품 및 수업내용
글 (읽기 교재)	3. 대대장렬락병 (김철학)	우리 인민군대가 전략적후퇴를 하던 1950년 초 겨울(중략)《저에게 는 어머니가 없어요. 돌아가셨니? 예, 미국놈들의 폭격에...그럼 아버 지는? 만철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군데에선 묻는 말에 얼른얼른 대답 을 해야 돼. 아버지는 미국놈들이 죽였어요. 목 매달았어요...》△문학 작품의 종자(김 (철)학) 소설《대대장렬락병》의 종자는 원쑤에 대한 복 수심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이 종자로부터 복수는 어 떻게 하여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원쑤에 대한 복수는 천백배로 해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9-14쪽)
글 (글짓기 교재)	9. 《소년빨찌산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미제원쑤놈들은 우리 나라를 먹어 보려고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발길 이 닿는 곳마다에서 모조리 빼앗고 불 사르고 닦치는대로 죽이는 천인 공노할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중략)만약 원쑤놈들이 또다시 전 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전체 소년단원들은 한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어 원쑤놈들을 쏘아 버리고야 말 것이다(33-34쪽)
글 (읽기 교재)	12. 《한집안식구》들 (김룡길)	이 승냥이네 식구들처럼 재물을 위해선 제 피줄까지도 물고 뜯으며 날 뛰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악착한 본성입니다.(속담)덕은 덕으로 대 하고 원쑤는 원쑤로 대한다. 선의를 표시하는데 대하여서는 선의로 대하고 침략하려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적으로, 원쑤로 간주한다는 말 (43-45쪽)

〈표 17〉 고등중학교 4학년 문학 교과서의 '원쑤'의식화 교육(교육도서출판사 주체)

기능	제목	작품 및 수업내용
중세 소설 문학	채봉감별곡 (19세기 창작)	사랑에 대한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청춘남녀들의 개성해방의 지향을 보여주면서 탐욕과 출세와 매관매직에 눈이 어두운 봉건통치 배들의 썩어빠진 생활을 폭로하고 있다(74-88쪽)
신소설	현미경 (김교재(아숙))	〈한일합병〉직전에 특권계급과 그들의 횡포, 탐욕을 무자비하게 비판 한 것이다.(중략)《이놈 원쑤의 놈아. 우리 아버지 칠원쑤를 인제야 갚

신소설	현미경 (김교재(아숙))	는다. 예그예그 네머리를 베여다가 우리 아버지 제연에 받들어드려서 구천에 슬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원혼을 위로해드리지 아니면 내 가슴에 쌓이고쌓인 원한을 어찌 풀겠느냐(92-101쪽)
가사	자장가 (김정숙어머님)	아가야가 자장자장/어서 자거라/어서 자라 속히 자라/총칼을 메고/조 국해방 만세(187쪽)

〈표 18〉 고등중학교 5학년 문학 교과서의 '원쑤'의식화 교육(교육도서출판사 주체 92)

기능	제목	작품 및 수업내용
장편 소설	새 조국건설 시기의 문학 땅 (리기영)	광바위는 피포기로 자기의 얼굴을 갠기 왜농농업기수를 논귀통이에 쳐박은 죄 아닌《죄》로 6년간 징역을 산다. 그동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하나밖에 없던 누이동생마저 잃어 버리게 된다(25-34쪽)
전쟁 시기 문학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문학 조선은 싸운다 (조기천)	산밑에서 아우성치는 원수들에게/《개놈들이 올라 오라! 나 혼자뿐이 다!》 어찌 인민군전사의 손에서 수류탄이 목표를 모르랴(중략) <u>행복의 땅을 위하여/3천만의 봄을 위하여/조선은 싸운다!/평화를 지</u> <u>키는 세계의 랑심들은 열화의 성원을 보내거니</u> 전승의 위대한 신념으 로 조선은 싸운다!(52-56쪽)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 (천세봉-1962년 창작)	소설의 이야기는 일제패망직전에 징병에 끌려 나갔던 마영기가 자기 동료들을 무참하게 총살하는 일제놈들의 횡포한 만행에 참을수 없어 단신으로 장교놈을 처단하고 권총을 빼앗아 든 채 도망쳐 산속에 숨어 다니다가 광복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 오는데로부터 시작된다.(중략) 혁명이란 무엇인가? 자주와 자본가를 이세상에서 때려 없애는 거거든 (177-187)

〈표 19〉 고등중학교 6학년 문학 교과서의 '원쑤'의식화 교육(교육도서출판사 주체 91, (2004))

기능	제목	작품 및 수업내용
시	쏘베트려권 (마야콥스끼)	그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및 략탈적본성을 폭로단죄하며 소 시민근성,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내용의 풍자시와 풍자적인 희곡 등을 창작하여 쏘베트식문학을 풍부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중략)나는 승랑이처럼 관료주의를 씌어 버릴테 다(153-156쪽)
장편 소설	어머니 (고리끼)	밀정의 고발로 아들이 체포되어 가고 집을 수색하는 헌병놈들의 만 행을 목격하면서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증오에 불 타게 된다(중략)/ 놈들은 어머니의 목덜미와 잔등을 떠박지르고 어깨와 머리를 때렸다 (156-163쪽)
장편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오스트롭스카)	소년로동자였던 빠웰꼬르차킨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꼬르차킨이 《하느님》을 부정하는 질문을 한 탓으로 학교에서 쫓겨난다(중략)부르 쵸아지는 오래동안 견디지 못해요...세상은 전 인류를 포함한 하나의 공화국으로 될거예요(174-183)

김정은 시기 국어 교과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쑤’의식화 교육 내용은 김정은 전시기 국어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하였기에 유사한 내용이 많다. 전환의 관점을 가진 단원은 ‘중학교 1학년, ‘41과 통일의 문을 열자’와 ‘고등중 5학년 문학,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문학, 조선은 싸운다’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중학교 1학년에 제시된 ‘통일의 문을 열자’와 관련된 내용에는 우리 민족은 하나였고 조국도 하나였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미제에 의해 허리를 꿰기운채 둘로 갈라져있다’고 말하면서 ‘팔을 마주잡을 듯, 발을 들면 건너설 듯, 한지척, 한 조상의 피로 화목하게 살아왔다’는 것과 오늘날 ‘강건너마음이 된 것에 대한 아득함’의 정서를 담고 있다. 이글의 중심 내용은 ‘미제’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분단 전의 시간과 공간에서의 화목한 삶을 그리워한다는 점에서는 통일시대 국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전환의 관점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또 고등중학교 5학년 문학의 경우, ‘행복의 땅, 평화를 지키는 세계의 량심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북한이 지향하는 교육적 관점은 ‘전승을 위해 위대한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만, ‘행복, 평화, 량심’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환의 관점이 된다고 보았다.

3. 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전환 관점

김정은 전후 시기 국어, 문학 교과서 단원 중 계급주의 교양 교육에 나타난 ‘원쑤’의식화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전환할 수 있는 관점을 포함한 교과서 단원이 있다. 이 단원만을 묶어 <표 2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0〉 전환의 관점을 담고 있는 북한 국어 교과서 단원

시기	교과서	단원명	전환 관점을 담고 있는 교과서 내용
김정은 시기	소학교 2-2	(읽기)제17과. 행복의 손 부들부들	용서할가/살려줄가(10-21쪽)
	초급중학교 1	(우화)제12과. 악어의 눈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악어를 보니 원숭이의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불쑥 솟구쳤습니다(94~95쪽)
	고급중학교 2	장편소설 :레미제라블 (빅토르 유고)	《레미제라블》이란 우리 말로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다. 소설은 자비심과 인간의 도덕적완성을 통하여 자본주의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악과 불행을 없앨수 있으리라는 견해를 표현하였다(245쪽)
김정은 전 시기	중학교 1학년	41. 통일의 문을 열자	팔을 들면 서로 마주잡을 듯, 발을 들면 저편 강기슭에 건너설 듯 한 지척의 남녘땅, 한 조상의 피를 이어 대대로 화목하게 살아왔고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강건너마을이 오늘은 왜 이다지 멀고 아득하단 말입니까(128-130)
	고등중학교 5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문학 조선은 싸운다 (조기천)	행복의 땅을 위하여/3천만의 봄을 위하여/조선은 싸운다!/평화를 지키는 세계의 량심들은 열화의 성원을 보내거니 전승의 위대한 신념으로 조선은 싸운다! -1951-(조기천)김정은 전시기 문학 중학교 5학년 교과서(52-56)

전환의 관점을 가진 교과서 단원은 위 〈표 20〉과 같이 김정은 시기 교과서에 3개, 김정은 전 시기 교과서에 2개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국어 교과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에서도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평화, 화목, 량심, 도덕적 완성, 용서, 행복’과 같은 화두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통일 시대 국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내용 마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남북한 국어 교과서를 비교하여 ‘통합, 삭제, 배제, 추가’하는 논의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국어교육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북한 국어 교과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계급주의 교양 교육에서도 전환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해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췌’의식화 교육이 어떻게 표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출한 전환의 관점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북한 국어 교과서의 '원쑤'의식화 교육 내용분석과 전환의 관점

분류	내용	
상황	항일혁명투쟁시기,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식민통치시기, 해방전후, 빼앗긴 조국, 약육강식, 빼앗긴 나라, 홍산골 전투, 조선해방전쟁, 자본주의 현실, 침략전쟁, 한일합병, 일제패망직전	
'원쑤'의 대상	미국	미국놈, 미제침략자들, 덩구는 미국놈, 해골이 그려져있는 철갑모, 미제야수, 계급적원쑤, 원쑤미제놈, 미제원쑤놈들, 미제승냥이놈들, 개놈들아, 코빼쪽이 미국놈들, 겁쟁이, 도적, 사냥개, 크고 사나운 짐승, 페스머놈, 사나운 개, 족제비소굴
	일본	일본놈, 일제놈, 왜놈, 토벌대놈들, 조선인민의 원쑤, 아버지의 원쑤, 일제의 칼, 외세, 일제토벌대놈들, 왜놈 장교, 헌병놈들, 계급적원쑤
	봉건 지배자 및 부르주아, 제국주의자	변부자, 짐승만도 못한 놈, 부르조아지, 수전노적본성, 착취계급들, 흡혈귀들, 왕과 줄개, 악착한 본성, 승냥이네 식구, 제 피줄까지도 물고 뜯으며 날뛰는 것, 탐욕과 출세와 매관매직에 눈이 어두운 봉건통치배들, 특권계급, 지주와 자본가를 이세상에서 때려 없애는 거, 지주놈, 랑반부자, 지주 아들, 지주, 자본가놈들, 자본가놈, 욕심쟁이 지주놈, 고약한 지주놈
	악독한 동물	악어, 악독하기 그지없는 여우, 피비린내를 맡은 이리떼, 시라소니, 족제비
	남한	이승만괴뢰당, 개새끼들, 남조선 괴뢰
고통 당하는 민중 표현	아동단원, 전기육소년 나이 13살, 조선사람, 소녀, 성냥파는 소녀, 항일유격대, 마음 착한 평네 집, 어미 평, 인민,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린 진태, 용맹한 장수, 제주도인민들, 소년중대원들, 훌륭한 혁명가, 농사꾼, 봉순이, 가난한 사람들, 불행과 비극적 처지, 군의 가족, 인민군대 아저씨들, 우리 인민, 할아버지, 할머니, 노동자 농민, 우리 인민군대, 소년단원, 누이동생, 어머니, 인민군전사, 징병에 끌려 나갔던 마영기 자기 동료들, 어머니의 목덜미, 소년노동자, 항복의 손, 무서워 부들부들 떠는 이야기, 억울한 마음, 혁명군아, 금순이는 아홉 살이었다, 가족채찍, 살점이 뜯겨지고, 빨간 피, 아홉 살의 꽃망울, 고문장, 웨침, 사형장, 감방, 머슴, 힘겨운 일, 시달림, 작은 다람이, 빨리 죽어	
표현 갈래	동요, 동화, 우화, 이야기, 외국소설, 장편소설, 실화, 시, 감상문, 단편소설, 혁명연극, 장편서사시, 장편소설, 장편실화소설, 서정시, 일기, 감상문, 중세소설문학, 신소설, 가사, 전쟁시기 문학	
가능 갈래	글(읽기, 말하기, 글짓기 교재)	
'원쑤'의 행위에 대한 표현	불벼락, 격멸, 소탕, 섬멸, 징그러운 미국놈낫짝, 힘껏 후려갈겼다, 아유뵈, 비꼬아주는 표현수법, 몽땅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빼앗겼느냐, 짓밟혔느냐, 증오, 적개심, 송고한 자기희생성, 영웅성, 억울, 원망, 저주, 불행한 처지, 가소로운 꼴, 가소롭다, 시비질, 투쟁의 무기, 전투, 조선의 땅, 악랄한 방해 책동, 침을 뱉고, 무참히 짓밟혔던 비참한 모습, 통분한 심정, 울분, 비극적운명,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 계급적 각도, 저주와 증오, 항거의 정신, 협잡, 반동적본질, 사회악과 불행, 때려부스며, 색은 동태눈깔, 죽쳐, 복수의 불길, 총탄으로 때리고 구두발로 차며, 피땀, 원쑤에 대한 복수심, 천인공노할만행, 총폭탄이 되어 원쑤놈들을 쓸어버리고야 말 것, 색어빠진 생활, 폭로, 횡포, 탐욕, 칠원쑤, 총칼을 메고, 침범했다, 혼쭐이 나서, 사시나무 떨 듯, 증오의 빛	
전환 관점	옹서할가, 동정심, 자비심과 인간의 도덕적 완성, 민족도 하나, 조국도 하나, 화목, 조상의 피, 하나의 지맥, 평화, 량심	

‘원쑤’와 관련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상황은 주로 ‘일제 강점기, 항일 투쟁기, 조선해방전쟁(한국전쟁)기, 미군정기’ 등으로 분류된다. 당시 봉건지배자, 지주자본가, 일본, 미군에게 고통당하는 시기임을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래로 표현하고 있다. ‘원쑤’의 구체적 대상은 ‘미국, 일본, 봉건 지배자 및 부르주아, 제국주의자, 악독한 동물, 남한’ 등이다. 이들은 ‘미제침략자, 조선인민의 원쑤, 착취계급들, 이리떼, 승냥이, 남조선 괴뢰군’ 등으로 표현된다. ‘원쑤’에게 고통당하는 대충은 주로 ‘아동, 소년, 소녀, 어린 나이의 항일유격대, 누이동생,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머슴, 로동자, 농민, 마음 착한 꿩, 작은 다람이’ 등으로 보호의 대상, 효도의 대상, 돌봄의 대상이다. 이들을 괴롭히는 ‘원쑤’는 상대적으로 더욱 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하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다. 표현 갈래는 동요, 우화, 외국소설, 실화, 시 연극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북한 국어 교과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에서는 모든 갈래를 다 활용하여 ‘원쑤’에 대한 의식화 교육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원쑤’에 대한 적개심은 ‘소탕, 섬멸, 후려 갈김, 야유법, 비꼬아 주는 표현, 짓밟힘, 증오, 원망, 가소로움, 천인공노할만행’ 등으로 표현된다.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원쑤’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기 위한 교육 내용이 거의 전부이지만, 총 5개의 단원에서 통일 시대를 위한 전환의 관점을 찾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동정심, 자비심, 도덕성, 하나의 민족, 회복, 용서’ 등이다. 이들 단어가 북한에서도 보편적 가치로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선말 대사전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많은 설명 중에 일차적 의미만을 북한식 띄어쓰기를 바탕으로 다음 <표 2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22〉 조선말대사전에 제시된 전환 관점관련 단어의 뜻(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1992)

단어	뜻
도덕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른 사람 또는 집단, 사회에 대한 관계에서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 준칙과 규범, 도덕은 사회를 유지하고 공고발전지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요인이다(조선말대사전 상, 751쪽)

동정심	남을 동정하는 마음(조선말대사전 상, 809쪽)
량심	①선량한 마음씨, ~ 무엇에 감복하다(조선말대사전 상, 940쪽)
자비심	자비를 베푸는 마음(조선말대사전 하, 26쪽)
지맥	①하나로 이어져 있는 땅의 줄기. 하나의 지맥으로 잇닿아있는 조국강산,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조선 인민, 조선은 절대로 둘로 갈라질수 없다(조선말대사전 하, 355쪽)
평화	①전쟁이나 무장충돌 같은 것이 없는 상태. 전쟁과 ~, ~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 ~옹호운동, ~협정, ~애호력량(조선말대사전 하, 802쪽)
행복	①생활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어 흐뭇이 즐거운 상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에 거워하는 어린이의 모습(조선말대사전 하, 1059쪽)
화목	서로 돕고 사랑하며 의가 좋은 것(조선말대사전 하, 1099쪽)
용서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처리하는 것(조선말대사전 하, 1576쪽)

전환의 관점과 관련한 단어는 조선말대사전의 일차적 의미에서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차적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나 예시에서 주체사상과 관련한 북한만의 해석을 덧붙인 단어도 있었다. 예를 들어 ‘량심’과 관련한 예시에서 ‘세계의 량심들은 말한다. 미제는 조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라고 제시하고 있다. 통일 시대 국어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전환의 관점은 기존의 뜻에서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북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췌’의식화 교육 관련 전환 관점 단어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교육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속 논의로 이어가고자 하며 이 연구에서는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전환 관점을 추출하기 위한 국어 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IV. 결론

통일 시대 국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정치사상 교양 교육 중 계급주의 교양 교육’에 대한 교육적 전환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원쑤’의식화 교육과 관련되어 있어 북한 청소년에게 아브젝시옹의 적개심을 강화시키고 있다. 학교 교육은 이 교육을 위한 공적 통로로써 활용되고 있는데 국어 교과서 내용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 국어 교과서 김정은 전시기 소학교 1, 2, 3학년 국어, 김정은 전후 시기 중·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쑤’의식화 교육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확인하였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시기는 생애 주기 동안 올바른 가치관과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배워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북한 국어 교과서의 ‘원쑤’의식화 교육은 자극적 사진, 그림, 언어표현 등으로 부적절한 교육요소가 많았다. 이는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며 세계 시민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는 지금의 교육에 역행하는 일이며 통일 시대 평화로운 공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쑤’의식화 교육에서도 전환의 관점을 찾을 수 있었다. 소학교 2학년 2학기 ‘용서할가’와 관련한 내용과 중·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의 ‘동정심, 자비심, 인간의 도덕적 완성, 민족도 하나, 조국도 하나, 화목, 조상의 피, 하나의 지맥, 평화, 량심’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통일 시대를 기대하는 미래 지향적 국어교육 기반 구축은 계급주의 교양 교육과 같이 ‘원쑤’를 규정해 놓고 미워하고 투쟁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쑤’의식화 교육 관련 전환의 관점을 찾아본 것은 이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은 국어교육 내용 마련을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의 시대 남북한 청소년이 연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어교육을 위해 기초 연구가 되었다는 것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용서와 화해가 있는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20.1.31. 투고되었으며, 2020.2.19. 심사가 시작되어 2020.3.5.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1. 자료

- 김일성(1964),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민청단체들의 기본 임무, 북조선 민주 청년동맹 제3차 대회에서 한 연설 1948년 11월 13일」, 『김일성 선집』 2, 평양: 학우서방.
- 김일성(197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동경: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 김일성(1979),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 서 발표 1977년 9월 5일」,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6), 『김일성저작집』 3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94),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 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일성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교육도서출판사(2004), 『국어: 중학교 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 93.
- 교육도서출판사(2004), 『문학: 고등중학교 6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 91.
- 김성우·오정환·리동수·왕광수·문재홍(2001), 『문학: 고등중학교 5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 92.
- 리기형·왕광수·한춘옥·문재홍·리광섭(2002), 『국어: 중학교 2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 92.
- 리수향·성순옥·김화옥·하정순·송일녀·염정실·김성옥·박은하(2013), 『국어 소학교 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2.
- 리수향·염정실·송일녀·김성옥·하정순·성순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3-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3.
- 리수향·염정실·송일녀·김성옥·하정순·성순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3-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3.
- 리수향·하정순·성순옥·송일녀·염정실·김성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2-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3.
- 리수향·하정순·성순옥·송일녀·염정실·김성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2-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3.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상, 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우인철·구경희·방복림·문성·백광명·장광길·리정화(2013), 『국어: 초급중학교 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 102.
- 우인철·백광명·구경희·문성·방복림·장광길(2014), 『국어: 초급중학교 2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 103.
- 조덕숙·문재홍·리광섭(2002), 『국어: 고등중학교 3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 91.
- 최학·황금순·정애련·배창국·라성학·안철권(2014), 『국어문학: 고급중학교 2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 103.

현종호·박준명·김성우·리동수·오정환·왕광수(1997), 『문학: 고등중학교 4학년』, 평양: 교육
 도서출판사 주체.
 황금순·최학·배창국·라성학·정애련(2013), 『국어문학: 고급중학교 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
 판사 주체 102.

2. 논저

김지수(2013), 「북한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
 회학연구』 23, 59-82.
 문성규(2012), 「적대의 지구화와 정치의 조건들」, 『철학논집』 28, 149-196.
 민족통신(2016. 4. 8.), 미군들의 잔혹한 학살장소로 이름난 '신천박물관'참관, 유튜브, 검색일
 자 2019. 10. 24., 사이트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MEUR2x-CMCM>.
 박찬석(2013), 『북한 교육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송두록(2004),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구현한 북한의 주체적 교육 정책에 대
 한 분석 및 평가」, 『통일교육연구』 4(1), 98-141.
 송명희(2016), 「폭력과 아브젝시옹」, 『비평문학』 61, 38-107.
 엄인영(2019), 「북한 국어, 문학 교과서의 주체사상 교양 교육의 내용 요소 탐구」, 『문학교육학』,
 62, 177-219.
 임성우(2012), 「언어적 감정 표출과 집단 심상」, 『서강인문논총』 34, 135-162.
 조현(2018. 5. 24.), 반미사상 교양 성지 '신천박물관도 폐기해야', Daily 북한뉴스, 검색일자
 2019. 10. 24., 사이트 주소 <https://www.dailynk.com>.
 지다슬(2015), 「북한이탈청소년의 북한 소학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홍성민(2015), 「감정구조와 대중정치학」, 『정치사상연구』 21(1), 9-34.
 Carolin, E. (2017), 『혐오사회』, 정지인(역), 과주: 다산초당(원서 출판 2016).

북한 국어 교과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썬’의식화 교육 내용분석

엄인영

북한 국어 교과서는 김일성 교시인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정치사상 교양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중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정치사상 교양 교육의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로, ‘원썬’에 대한 분노와 증오, 투쟁 정신을 갖도록 의식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연구는 북한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계급주의 교양 교육을 위한 ‘원썬’의식화 교육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통일 시대 국어교육을 위한 전환의 관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소학교 교과서는 삽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령기 아동에게 부적절한 그림이나 사진이 많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 국어 교과서의 ‘원썬’은 ‘미국, 일본, 남한, 제국주의, 지주자본가, 봉건지배자, 악독한 동물’로 표현되었다. 이들 ‘원썬’은 당시 역사적 상황과 함께 다양한 갈래로 묘사된다. ‘원썬’에게 고통당하는 민중은 ‘소녀, 소년, 아동단원, 인민군대, 누이동생,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대상이다. 약자를 괴롭히는 ‘원썬’은 더욱 잔인하게 묘사되며 오랜 기간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의 마음 속에는 ‘원썬’에 대한 아브렉시움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원썬’과 관련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동요, 동화, 우화, 실화, 단·장편 소설, 일기, 감상문, 외국소설’ 등의 다양한 갈래와 기능영역인 ‘읽기, 말하기, 글짓기’ 등의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북한 국어 교과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쑤’의식화 교육 내용분석은 통일 시대 국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전환의 관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모두 ‘원쑤’에 대한 적개심을 의식화하기 위한 계획적인 교육이지만 내용 중에서 전환의 관점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 ‘동정심, 자비심, 인간의 도덕적 완성, 민족도 하나, 조국도 하나, 화목, 조상의 피, 하나의 지맥, 평화, 량심’과 관련한 내용이 그것이다. 계획적으로 설계된 북한 국어 교과서 교육 내용에서 이와 같은 화두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통일 시대 국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희망적 요소가 될 것이다. 전환의 관점을 통해 통일 시대 국어교육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북한 국어교육, 계급주의 교양 교육, ‘원쑤’의식화 교육, 적개심, 전환의 관점

ABSTRACT

An Analysis of the Educational Content of Classical Education in North Korean Language Textbooks

Uem Inyoung

North Korea's Korean language textbooks will be organized around Kim Il-sung's teaching style (education in political thought and culture of the socialist educational system). Dual-class liberal education is one of the four elements of liberal education in political history, a ritual education that enmeshes "Wonsu."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North Korean language textbooks,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how the "Wonsu" awareness education for classist culture education was appli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i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era of unificatio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have focused on illustrations and I have seen many inappropriate pictures and pictures of school-age children. The Korean language of middle and high schools and literature textbooks have focused on the content.

The "Wonsu" in North Korean language textbooks was described as "the United States, Japan, South Korea, imperialism, landlord capitalists, feudal rulers, and vicious animals." These "Wonsu" were described as various divisions due to the historical situation at that time. The people who suffer under "Wonsu" are considered "social underdogs"; for example, girls, boys, children, members of the People's Army, sisters, mothers, grandfathers, and grandmothers. "Wonsu" is described as being more cruel.

Classical education related to "Wonsu" is being provided in various learning situations, such as fairy tales, fables, true stories, short and long novels, diaries, appreciation sentences, and foreign novels, as well as in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language textbooks was aimed at find-

ing a point of transition by carefully reviewing them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unification era. All classical liberal education is designed to realize hostility toward “Wonsu,” but there were elements of the content that could be a turning point, such as “sympathy, mercy, morality, harmony, one vein, forgiveness.” It is a hopeful ele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usher in the era of unification that such topics can be found in the planned and designed educational content. Based on this, various aspec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period of un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North Korean Language Education, Enemy and Classical Cultivation Education, ‘Wonsu’ Consciousness Education, Hostility, Finding a Point of Transition